

---

# 5분 자유발언

- SK오션플랜트 매각 논란 넘어, 약속의 이행으로 -

---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온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추진으로 인해

‘떡튀 특구’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고성군의회와 공동 대응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10월 22일 의원 11명 전원 공동발의로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10월 28일에는 사업장 앞에서

매각 철회와 고용·협력사 대책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11월 10일, 11일에는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와 군민이 함께하는  
단일 협상 창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의회는 다양한 통로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총 9,500억 원 투자와  
지역 거주자 3,600명 우선 고용을 약속하며  
고성의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아 온 기업입니다.

우리 군과 군민은  
이 약속을 믿고 동해면 해안을 내어주고,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인허가,  
도로와 주거시설,  
특구 연계 계획 수립 등

공공투자에 힘을 보태 왔습니다.

그러나 공장 완공이 되기도 전에  
모기업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의 고용 안정성,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지,  
앞으로의 투자 일정에 대한 신뢰에  
큰 금이 간 실정입니다.

이미 투입된 공공 자원이  
지역 일자리와 소득으로 환류되기보다  
기업의 매각 이익과 가치 상승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추가 투자와  
전체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고성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각 반대 입장과 대응 의지를 공식화하고,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지원과 간담회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느끼는 불안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군이 어떻게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한 기업의 지분 구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구 제도의 신뢰와 향후 전략사업의 수용성,  
지역 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불투명성과 일방적인 통보가 반복되면  
다음 투자와 협력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제도와 공개 속에 묶어낸다면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신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지역 상생과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결정을 재고하거나 중단하도록  
군이 가질 수 있는 행정적 수단과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투자 계획과 고용 승계,  
협력사 계약 유지 방안을  
공식 문서로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될 경우,  
고성군은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매각 저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회사의 부채를 이유로 한  
매각 명분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재정적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군민과 함께 움직이는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매각 추진 경과와 협의 내용,  
향후 대응 계획을 알리고  
군민의 질문과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문이 아닌 공식 자료와 설명으로  
군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구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활성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고성의 미래는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협력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번 위기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